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1	③	2	⑤	3	①	4	⑤	5	③
6	⑤	7	①	8	③	9	②	10	④
11	⑤	12	①	13	②	14	②	15	④
16	④	17	①	18	④	19	④	20	③

생활과 윤리 해설

1. [출제의도] 윤리학의 구분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이론 윤리학의 입장, ‘어떤 사람들’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위해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데 주력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

2. [출제의도] 칸트의 의무론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도덕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해 참여자들 간에 상호 주관적 합의를 이루어야 규범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담론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참되고 진실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뇌사의 윤리적 쟁점 이해하기

같은 인간다움이 뇌 활동에서 기인하며, 뇌사를 인정하면 의료 자원을 아끼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심폐사와 더불어 뇌사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며, 인간의 죽음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인간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출제의도] 사랑에 관한 프로트의 관점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프로트이다. 프로트는 진정한 사랑을 수동적 감정이 아닌 능동적 활동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기쁨, 관심, 이해 등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성숙하고 생산적인 사랑이라고 보았다.

6. [출제의도] 맹자와 노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맹자, 물론 노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선한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부와 명성 등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싱어, 물론 롤스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법의 힘, 즉 법이 지닌 권위에 저항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이므로써 법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본인이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 법을 직접 위반할 수 없을 때, 다른 법을 위반함으로써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변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문화 산업에 관한 아도르노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도르노이다. 아도르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산업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 산업이 소비자의 반성적 사유를 위축시키고, 문화 체험에서 소비자를 수동적인 객체로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입장 비교하기

같은 배아가 도덕적 지위가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인간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배아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10. [출제의도] 교정적 정의에 관한 루소, 베카리아,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루소, 물론 베카리아, 병은 칸트이다. 루소는 살인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할 정도의 가혹성만을 가질 것을 주장하며, 최고의 가혹성을 보이는 사형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칸트는 형벌을 옹보의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살인자가 지닌 생득적 인격성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이해하기

정약용은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는[愛民] 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청렴과 절용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국제 관계에 대한 칸트와 모겐소의 입장 이해하기

같은 칸트, 물론 모겐소이다. 칸트는 낮은 나라에서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겐소는 국제 정치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권력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동맹을 수립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에피쿠로스와 장자의 죽음관 이해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물론 장자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죽으면 감각을 잃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순환의 과정으로 보면서 죽음에 초연할 것을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기술에 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이해하기

가상 편지 속 ‘선생님’은 야스퍼스이고, 편지를 쓴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이 단지 수단일 뿐이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면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기술 그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관한 롤스, 왈처, 노직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롤스, 물론 왈처,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천부적 자질을 타고나는 것을 자연적 사실로 보았다. 그는 차등의 원칙이 호혜성의 관념을 표현한 것이며, 모든 구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왈처는 한 사회적 영역 안에서 고유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생한 독점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사회적 가치가 각각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자연적 사실을 조정하는 호혜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해의 원조에 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이해하기

같은 싱어, 물론 롤스이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원조 주체가 원조할 때 발생하는 자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통받는 사회를 부정주의적 태도, 즉 온정적으로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유교와 불교의 음식 윤리 이해하기

(가)는 음식 윤리에 관한 유교의 입장이고, (나)는 음식 윤리에 관한 불교의 입장이다. 유교와 불교는 모두 음식을 먹을 때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출제의도]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이해하기

같은 홉스, 물론 로크이다. 홉스는 공통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입법권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크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주체는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들이며, 국가는 그들의 권력을 양도받은 수탁자이다.

19. [출제의도] 싱어, 칸트, 레오폴드의 자연관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싱어, 물론 칸트, 병은 레오폴드이다.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하고, 비이성적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전일론의 입장에서 대지 윤리를 제시하며,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정보 사회의 잊힐 권리 이해하기

칼럼은 아동과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잊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지지한다. 또한 삭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